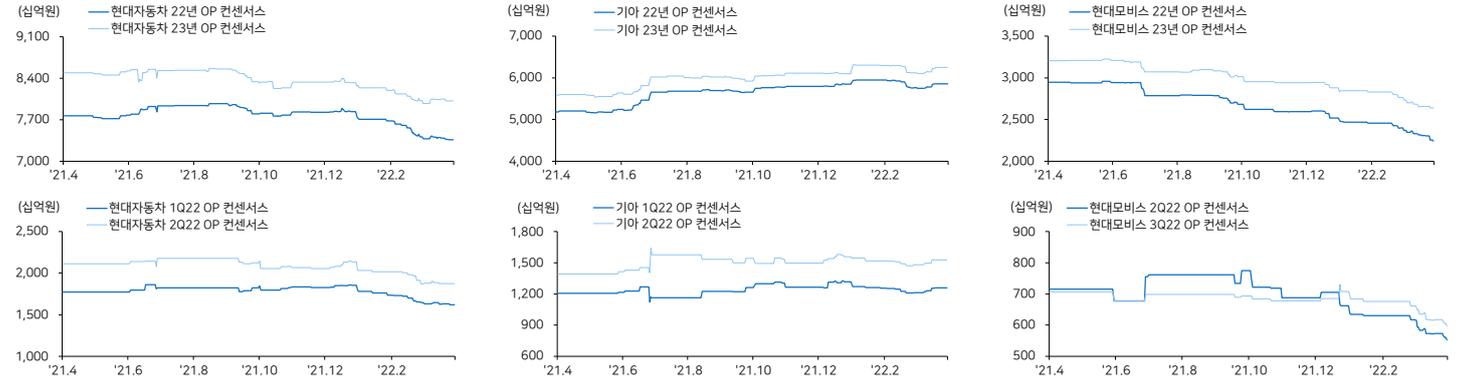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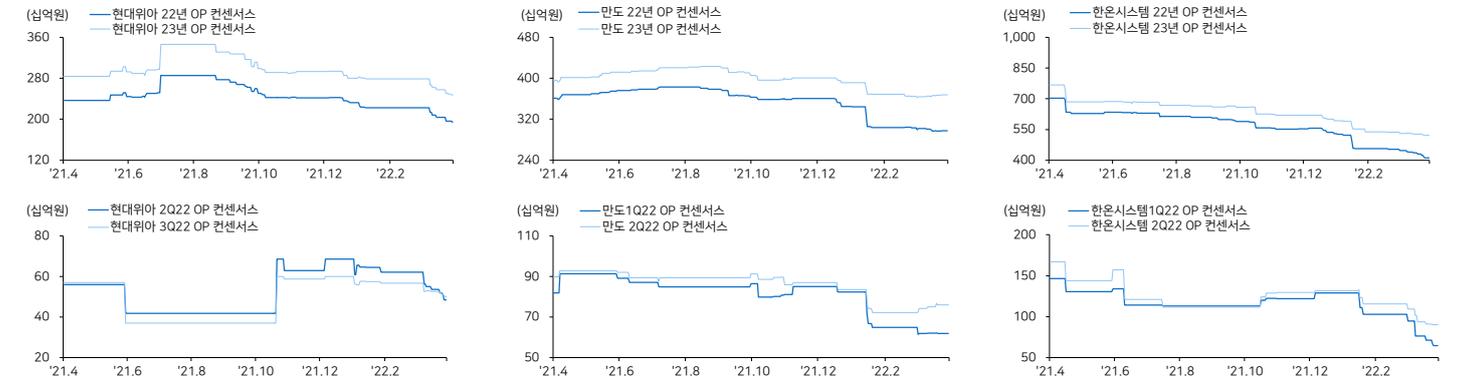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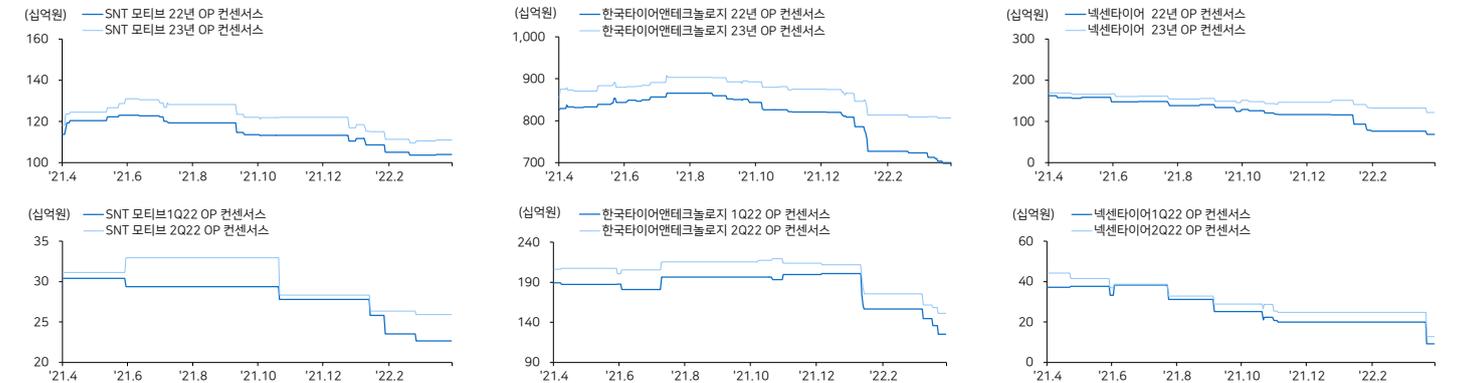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한국 공승 시작한 중국차... 中서 고전하는 현대차·기아 (국민일보)

중국 업체는 중국산 브랜드의 인식을 지우기 위해 해외 브랜드를 앞세워 국내 진출 중. 지난 1월 국내 출시한 폴스타는 스웨덴 Volvo를 인수한 중국 Geely의 브랜드. 사전예약 일주일만에 4,000대 계약을 끝낸 폴스타 생산은 모두 중국에서 이루어짐. <https://bit.ly/382Nhd0>

호세 무노스 현대차 미주사장, 유럽·인도까지 총괄 (조선일보)

현대자동차 호세 무노스 COO 미주 사장이 유럽/인도/중동/아프리카 운영도 담당하게 됐으며, 이사회 멤버로도 합류할 예정. 또한 엔티브와의 합작사 '모셔널'의 이사로도 추가로 합류할 예정. 북미에 한정됐던 무노스 사장의 역할이 대폭 확대됨. <https://bit.ly/3w379Vb>

Shanghai authorities stepped up to help Tesla reopen factory (Reuters)

상하이 당국이 6,000명 이상의 테슬라 상해공장 직원을 수송하고 공장 가동을 위한 소독 작업 수행을 적극적으로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는 상해 공장 지구 당국에 보낸 서한에서 이러한 사실을 밝혔으며, 45만대의 추가 Capa 확장 계획도 언급함. <https://reut.rs/30Vzm26v>

Tesla cancels employee bonuses tied to delivery quotas, raises salaries to compensate (electrek)

Tesla는 분기별 배송 할당량과 관련된 직원 보너스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보상하기 위해 판매 및 배달 직원들의 기본급 인상을 추진함. 그러나 대부분의 Tesla 직원의 급여가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https://bit.ly/3ybE2W>

전염병처럼 퍼지는 '세타2엔진' 조사... 현대차 조이는 美 주 정부 (아주경제)

현대자동차를 겨냥한 '세타2엔진 화재' 조사가 미국 동부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양새. 기존 연방 정부를 중심으로 진행됐던 조사뿐 아니라 추가로 여러 주 정부가 각각 별도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면서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됨. <https://bit.ly/3KHPRt4>

현대글로비스, 스마트 물류 솔루션 사업 '출사표' (정보통신신문)

현대글로비스는 고객의 물류센터에 첨단 물류 기술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스마트 물류 솔루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 물류센터 설비는 물론 시스템 구축, 운영까지 전 영역을 포괄할 계획. <https://bit.ly/38JXTxo>

Longtime Ford exec leaves for Apple to accelerate iPhone maker's EV work (Automotive News)

포드에서 오랜 기간 차량엔지니어링을 주도했던 Desi Ujkashevich를 애플이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애플의 전기차 개발 프로젝트 리더가 Doug Field에서 Kevin Lynch로 바뀐 이후 개발을 지속 추진 중인 중인 것으로 추정됨. <https://bit.ly/3KA11YI>

Stellantis buys car-sharing business as BMW, Mercedes take different route (Reuters)

스텔란티스는 BMW와 함께 Mercedes-Benz의 카셰어링 플랫폼 'Share Now'를 인수하기로 합의. 스텔란티스 모빌리티 부문 사장은 이번 거래가 해당 사업 매출을 '25년 7억 유로, '30년 28억 유로로 늘리는 계획의 일환이라고 설명함. <https://reut.rs/3KHHGpR>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